

---

2024 해외학술탐방장학

# European Envoy

유럽 포퓰리즘에 대한 심층 이해와 대한민국에 대한 제언  
\_서유럽 3국을 중심으로



# 탐방 기획 배경

## 「 서유럽의 우경화 진행 」

### 우경화 되는 서유럽

2024년 6월 유럽 의회 선거를 앞두고 유럽에서 극우 포퓰리즘 정당의 득세가 예상된다. 영국에서는 브렉시트 이후 우파 포퓰리즘이 성장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국민연합 정당이 반이민과 국가주의를 내세워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코로나19와 사회 혼란을 배경으로 이탈리아 형제단 정당이 급부상하여 여당이 되었다. 서유럽의 정치적 우경화와 극우 정당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극우 포퓰리즘 정당들의 집단안보 딜레마

극우 정당들은 민족주의, 반이민주의, EU 회의주의를 주된 특징으로 하며, 코로나19와 경제 불안으로 지지를 얻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의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극우 정당들의 국제공동체 탈퇴 주장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졌다.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의 EU 협력 강조는 극우 정당들의 안보 딜레마를 보여주는 사례로, 이런 현상에 대한 복합적 이해가 필요하다.

### 서유럽 극우 포퓰리즘 정당들의 집단안보 딜레마에 우리가 주목해야하는 이유

서유럽 극우 포퓰리즘 정당들의 집단안보 딜레마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발전 가능성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미일은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서유럽의 사례 연구는 한국의 안보 정책 방향 설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탐방 목표

## 유럽 내 포퓰리즘 현상 고조 파악

- 파리 정치대학 방문과 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유럽 내 각국의 포퓰리즘 득세 이유에 대한 유럽 정치학적 식견을 알아보고자 함  
이를 통해, 유럽 정치학계의 포퓰리즘 설명을 알아보고 각국이 처한 상황을 정치학적으로 분석하는 기회를 가질 것임
- 각국의 유럽 시민들에게도 지지하는 정당과 그 이유를 물어볼 계획  
해당 연구를 통해 유럽 주요국 내 포퓰리즘 현상 고조에 대한 이유를 유권자의 시각에서 바라볼 계획

## 유럽 내 포퓰리즘 추구 정당 당사 방문해 의견 듣기

- 현재 컨택 중인 유럽 포퓰리즘 추구 정당, 이탈리아의 오성운동 당사에 방문할 계획임.
  - 이를 통해 집권에 성공한 이탈리아의 오성운동 정당에게 포퓰리즘과 관련된 질문을 할 계획임.
  - 이탈리아의 오성운동과의 컨택을 통해 포퓰리즘 정당의 이념 및 정책 목표를 상세히 이해하기
  - 오성운동과의 대화를 통해 포퓰리즘 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그들의 정치적 우려에 대한 통찰력 획득

## 유럽 내 포퓰리즘 추구 현상과 대한민국 비교

- 유럽 내 포퓰리즘 추구 현상과 대한민국의 정치적 환경 비교를 통해 대한민국에도 해당 정치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지 비교해볼 계획이다.
  - 유럽 포퓰리즘 운동과 대한민국의 정치적 패턴 비교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 도출해 직접 비교를 할 계획이다.
- 상세하게, 상호 간 사회적, 경제적 요인을 비교 분석하고 현지 정치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 예측하며 이를 둘러싼 논쟁까지 알아볼 계획이다.



# 영국

## 대한민국과 상이한 정치문화

- 본 조가 영국을 방문했던 7월 4일은 영국 총선임에도 불구하고 TV나 거리에서 정치 홍보가 이뤄지지 않음  
=> 유일하게 발견 가능했던 노동당 지지 포스터도 변화가 구석에 A4 사이즈로 작게 붙여져 있었음 (개인 부착으로 보임)
- 정치 포스터나 현장 유세, 주변 언론 등에 고조되는 한국의 선거 문화와 매우 다름을 느낌

## 현지에서 만난 이번 보수당 참패에 대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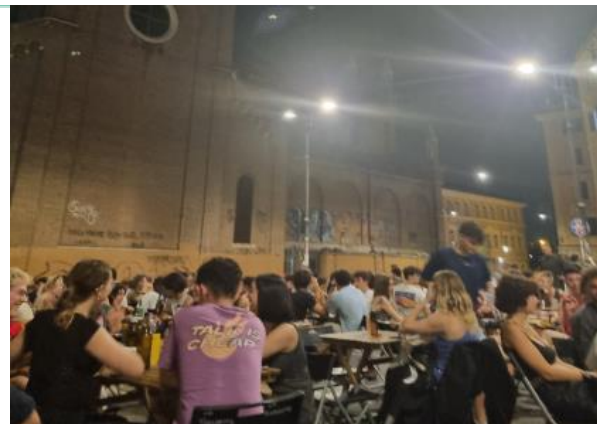
- 더 샤프드 인근 금융 기관 밀집 거리에서 현지인들에 대한 인터뷰를 시행함
  - 주식 트레이더 윌리엄 매튜씨는 과거 보수당 지지자였지만, 현재 보수당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국가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해서 본 선거에서 노동당에 투표했다고 이야기함
  - 옆에 합석하게 된 크리스티나 같이 행태를 바꾸지 않은 보수당 지지자들도 확인할 수 있었음
- => 본 조가 느낀 바로도, 현재 영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음. 식비 물가가 과도하게 비쌌, 환율을 고려하더라도 한 끼에 2~3만원 정도 쓰이고 있음
- 다른 날 만난 영국 청년들(정치적 이야기를 꺼려해 물가 이야기 중심 진행) 역시 현재 영국은 너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다는 말을 함
- => 높은 물가와 서민들의 체감적 경제 상황이 총선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느낌
- => 이것이 보수당에 대한 심판 느낌이 강하고 노동당에 대한 완전 지지는 아니라, 현 키어스타머 총리의 국정 운영력이 탄탄하지 않다는 결과 역시 추론 가능
- 실제로 키어스타머 총리의 노동당은 포퓰리즘적 정책의 자극성보다는 전반적 시민들이 포용할 수 있는 중도적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 중



# 이탈리아

## 오성운동 당사 방문 불발

○ 출국 직전까지 오성운동 당사와 소통을 진행하였으나, 오성운동 당사 측에서는 인터뷰 거절을 포함 로마 현지 방문 이후 오성운동 당사를 방문해 다시 한 번 이를 요청했으나 완곡한 거절을 받음



당사 주소 Via di Campo Marzio, 46

## 이탈리아 현지인 인터뷰 (사피엔자 대학 재학생 아씨에르)

- 나폴리 출신, 사피엔자 대학 재학 중인 아씨에르씨는 이탈리아의 포퓰리즘 정당 오성운동을 지지하고 있음.
- 이탈리아의 유구한 남북 개발 차이에 기반해서, 멜로니의 오성운동 정당이 남부를 발전시키고 개선시킬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음.
- 전형적인 포퓰리즘 지지자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음.
- 기존의 정치학에서 포퓰리즘 논의는 기존 정치 세력과 엘리트들에 대한 비효율성과 부패를 비난해 그들을 악마화시키고 지지를 얻고자 함.
- 아씨에르씨는 오성운동의 이런 내러티브에 완전히 동화된 모습을 보임.
- 완전한 정보를 지닌 유권자로 볼 수 없었음, 멜로니가 수행한 정책에 대해 정확히 증언할 수 없으며 당위적으로 그녀가 구 정치 시스템의 악습을 없애고 남부를 발전시킬 것이라 주장하고 있었음.

## 이탈리아의 환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던 포퓰리즘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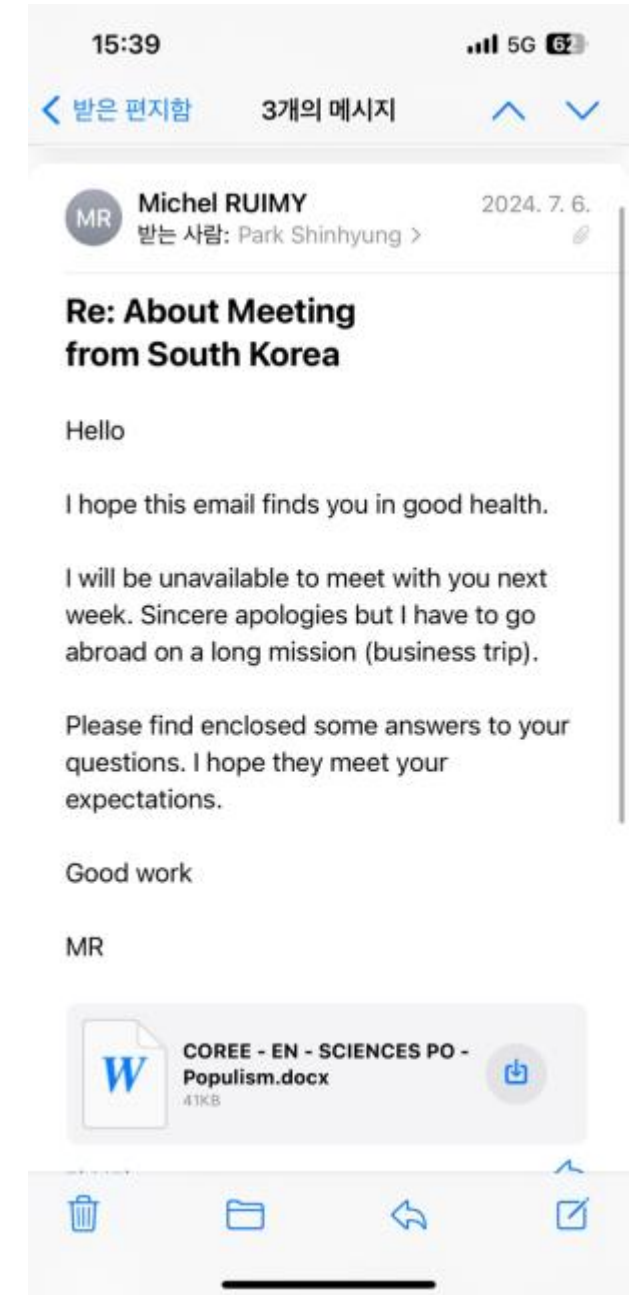
- 본 조가 숙박했던 지역인 로마 최대 역 테르미니 인근 역 치안을 불안정하게 하는 노숙자들은 대개 이민자 출신이었음.
- 이런 대표적 사례들이 이탈리아인들로 하여금 이민자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을 갖게 하고 이를 이용하는 포퓰리즘 정당의 집권을 도운 것이라 파악함.



# 프랑스

## 프랑스 정치대학 방문 불발

- 파리 정치대학의 Michel Ruimy 교수님이 학술탐방 출발 직전 예정되어 있던 미팅 (7/10)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연락 (북아프리카 출장으로 인해)  
학술탐방 도중 오른쪽과 같은 메시지 내용을 받음 (일전에 말했던 대로 출장으로 인해 인터뷰가 불가하다.)
- 다만 본 조가 사전에 보내드린 질문들에 무려 7장이나 되는 워드 페이퍼 분량의 답을 주셨고, 알아보고자 했던 핵심 질문 4개를 본 보고서에서 소개하고자 함.



# 프랑스

## "Rassemblement National"과 같은 프랑스의 포퓰리즘 정당들은 이민 정책과 이민자에 대한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Rassemblement National은 항상 이민을 국가 안보와 사회적 통합의 문제들과 연결시켜 왔다.

특히, 그것의 프로그램은 이민자들을 더 잘 통합하고 그들이 프랑스 문화 규범/가치를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더 엄격한 거주 허가과 조치들을 제안한다. 이 정당은 종종 이슬람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삼았고, 이들을 테러와 문화적 위화성의 문제들과 연결시켜 문화적, 종교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사회를 양극화시켰다.

주류 정당들이 그 문제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채택하면서, 이 전략은 프랑스의 이민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Nicolas Sarkozy (LR)는 그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이민을 줄이고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치들을 시행했다.

2018년에 Emmanuel Macron은 망명 규정을 강화하고 거부된 망명 신청자들을 위한 추방 절차를 가속화하는 법을 채택했다.

비록 LREM이 이 법을 이민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법으로 제시했지만, 이것은 이민 통제에 대한 RN의 입장에 공감하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게다가, 유럽연합의 이민 정책에 대한 RN의 강한 유로 회의주의와 입장은 유럽 연합 내에서 프랑스의 입장에 영향을 미쳤다.

생겐 협정과 유럽연합의 이주 위기 관리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논쟁들은 부분적으로

유럽 정책에 대한 RN의 비판과 이민 문제에 대한 국가 주권에 대한 그것의 요구에 의해 형성되었다.

=> RN은 이민을 국가 정체성, 문화 및 안보에 위협으로 제시함으로써 이민자에 대한 민심 형성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 결과 인구 간 외국인 혐오와 반이민 정서가 점차 증가하고 정치적 삶이 양극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민 문제는 주요 단층선이 되어 정당과 유권자를 친이민과 반이민으로 갈라놓으며 "함께 살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RN의 성공은 다른 운동들로 하여금 그들의 선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수사학의 일부를 수정하게 만들었다.

한때 주변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반이민" 담론이 정상화되었다. 그러나 극우 담론에 대응하기 위해,

더 포괄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이민 정책을 지지하며 이민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반대 운동들이 동원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담론에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동안, 프랑스 이민 정책과 여론에 대한 RN의 영향은 여전히 심오하다.



# 프랑스

## 프랑스의 포퓰리즘 지도자 담론은 다른 유럽 국가의 포퓰리즘 지도자 담론과 어떻게 다른가? 이러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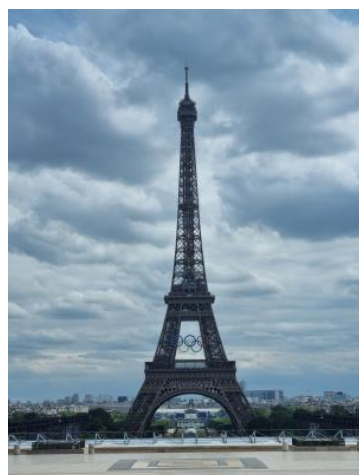
=> 포퓰리즘 지도자들은 사회적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고 사회적 응집력을 약화시키는 "우리 대 그들"의 역동성 덕분에 사회를 분열시키고 지지를 동원하기 위해 "분리주의 수사학"을 자주 사용한다.

그러나 유럽 포퓰리즘 지도자들의 담론에 공통된 주제(유럽 회의주의, 사회경제적 조건...)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찰되는 차이는 국가적 특수성의 문제에 가깝다.

=> 프랑스의 세속주의에 대한 헌신은 지역 경제 격차와 역사적 파편화가 지배적인 이탈리아나 AfD의 민족주의가 극우와 어떤 명시적인 연관도 피하도록 신중하게 공식화된 독일과는 달리 포퓰리즘적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

이민의 규모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프랑스가 문화 통합을 강조하는 것은 이민의 특수한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이탈리아와 독일 정당은 경제와 안보 문제에 플랫폼을 집중하고 있다.

정당 제도를 고려해보면, 프랑스에서 전통적 정당의 쇠퇴는 RN에 대한 광범위한 호소의 공간을 만들었다. 이탈리아에서 정치 지형의 파편화는 지역 및 경제적 불만이 포퓰리즘 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독일에서 AfD는 중도 성향의 대연정에 대한 불만을 이용하고 있다.





# 프랑스



## 포퓰리즘이 유럽의 자유민주주의 미래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 법치주의와 관련하여 포퓰리즘 정부는 종종 법적 장애 없이 그들의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해 사법부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것은 "충실한 판사"의 임명, 사법 기관의 독립성 감소, 행정권의 손에 권력을 집중시키고 입법 및 사법권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헌법 개혁의 착수, 정적과 시민 사회 조직의 약화, 비판(수사 개시, 체포, 법적 괴롭힘 등)의 침묵, 그리고 궁극적으로 개인과 소수 집단의 법적 보호를 약화시키는 것을 필요로 한다.

=> 그들은 또한 "유익한" 언론 보도를 보장하기 위해 종종 언론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 기구들은 "충성주의자"들을 주요 직책에 임명함으로써 중요한 선전 매체이다.

그들은 독립 언론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그들의 자유로운 운영 능력을 재정적 지렛대 사용(국익에 해롭다고 여겨지는 내용, 언론인의 협박 및 괴롭힘 등에 대한 금지법), 재정적 지렛대 사용(공공 광고 감소, 벌금 및 징벌적 세금 등)으로 제한하기 위한 엄격한 규제에 의존한다.

그들은 또한 언론 소유가 정권 지지자들 사이에 집중되도록 사업 "동맹"에 의한 독립 언론의 획득을 장려하거나 촉진할 수 있다.

=> 따라서 유럽에서 포퓰리즘 정당의 부상은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제도와 사법제도에 대한 위협, 언론의 독립에 대한 압력...)에 도전한다.

민주주의 제도를 약화시키고 시민사회를 약화시키는 그들의 능력의 성공은 권위주의적 관행의 정상화, 민주주의 통치의 약화, 양극화 증가 및 사회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 프랑스

## 프랑스의 포퓰리즘 정당들은 상이한 경제적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노동자 계층과 중산층의 특정 계층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었을까?



=> 노동자 계층과 관련하여 RN은 경제 세계화와 탈산업화의 맥락에서 고용 안정에 대한 두려움을 활용했다. 보호주의 정책(관세, 아웃소싱/활동 재배치 제한 등)을 추진하고 특히 경제적 쇠퇴 및/또는 이민자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강력한 지역 대표성에 의존하는 것 외에도 이민자들이 일자리, 주거 및 사회 서비스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외국 경쟁에 위협을 느끼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노동자 계층이 의존하는 사회적 혜택과 공공 서비스를 보호할 것을 약속하면서 복지 국가를 유지하고 강화할 것을 옹호한다.

=> 중산층, 특히 글로벌 경쟁을 우려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RN이 지역 기업(경제 민족주의)을 지원하고 규제 및 세금 부담 완화(소득세 인하, 중소기업 인센티브 등)를 약속하고 있다.

=> 따라서 RN의 성공은 한편으로는 특정 계층의 특정 관심사와 관심사를 다루는 다면적인 전략에 기반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계층 경계를 넘어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슈를 우선시한다.

프랑스 문화와 정체성의 보존을 강조하는 것은 다문화주의와 이민으로 인해 자신의 삶의 방식이 잠식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노동자 계층 유권자들과 안보와 사회 안정을 걱정하는 중산층 유권자들 모두에게 호소한다.

또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문제에 자신의 메시지를 맞춤으로써 이질적인 지지 코호트를 구축할 수 있었다. 결국 유권자들의 다양한 계층의 특정 관심사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마린 르펜의 리더십은 이러한 다양한 선거 기반을 일원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서민'들의 고민을 이해하는 카리스마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 자신을 내세우는 그녀의 능력은 필수적이었다.



---

## 4. 개별 보고



# 하준서

○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을 다시 한 번 느끼다

=> 본 조장은 정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고, 국제관계학 및 국제안보 분야로 석사를 본교에서 한 다음 미국 정치학 박사 유학을 계획 중임, 따라서 서구권 국가의 정치 및 안보 분야에 대한 공부를 활발히 진행해 왔음

=> 이번 탐방에서 느낀 점은 내가 텍스트로 읽어도 실제 그 현장을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임

=> 나의 Subfield는 아니지만 비교정치(Comparative Politics)를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국가별 방문은 필수로 느껴질 만큼, 이번 탐방에서 각국의 정치 문화와 상황, 유권자들의 생각을 정말 잘 알 수 있었음

○ 포퓰리즘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가능해지다

=> 포퓰리즘은 정치학적으로 유권자와 선출직 엘리트들 간 간극을 심화시키고 포퓰리즘을 호소하는 지도자들로 하여금 표를 동정하게 만들, 이는 유권자의 생각 변화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 이번 탐방을 통해 이를 수행하는 서유럽의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토대로 이를 행하게 되었는지 좀 더 심층적 이해가 가능했다. 텍스트로 단순하게 읽는 경제적 불평등 호소 등의 요인보다 그들과 직접 대화하며 어떤 점이 불만이었는지를 직접 듣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왜 포퓰리즘적 현상을 유발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심층적 이해를 가능하게 해줬다.

○ 서유럽의 안보 환경을 배우다

=> 프랑스의 혁명기념일, 영국의 군사박물관 등을 방문하면서 나의 Subfield와 관련된 국제안보환경 및 서유럽 국가의 국방 및 안보 태세를 알 수 있게 된 좋은 기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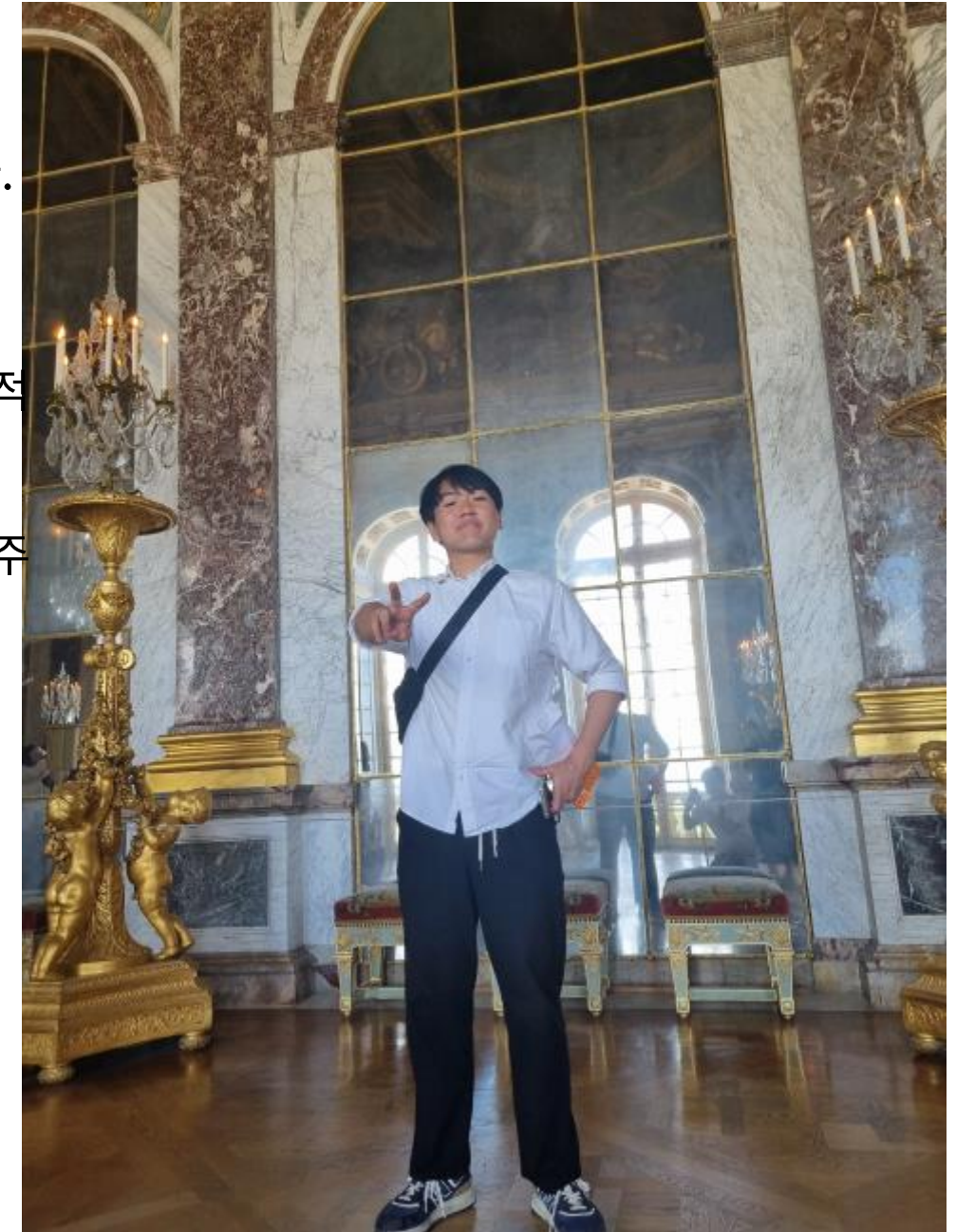
=> 이런 소중한 기회는 비단 정치학도들 말고도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좋은 탐방을 가능하게 해주신 동국대학교 측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 구본건

- 탐방 후 느낀점: 생애 처음으로 유럽에 간 것이기에 모든 것이 놀라웠습니다. 한국과는 다른 자연환경, 그로 인해 너무나 다른 모습을 가진 건물들과 사람들 그리고 음식들에 눈을 빼앗기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유럽 광장의 노숙자마저도 제가 빅토르 위고의 어느 책에선가 보았던 유럽의 풍경 속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을 안겨주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서 경험했던 문화는 무엇보다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정치학의 발상지이자 현대 세계 정치를 움직이고 있는 지역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은 저로 하여금 수많은 영감과 탐구적 열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유럽의 정치를 바라봤을땐 한국에서도 충분히 탐구할 수 있지만 미시적 관점에서 시민들 개개인의 정치에 대한 생각은 알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이 잘 정착되어 있는 서유럽에서는 정치에서 민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생각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는 현지 사람들에게 녹아들려고 노력했고 이러한 노력이 어느정도는 통했다고 생각합니다.
- 탐방 후 자신의 계획: 탐방 도중에 유럽에서 몇가지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례적으로 노동당이 보수당을 상대로 압승하고 프랑스에서는 2차 결선에서 국민연합이 패했습니다. 저희 조의 탐방 계기는 유럽 우파 포퓰리즘 정당의 굴기였으나 이번 탐방에서 우파 포퓰리즘 정당들의 기세가 한풀 꺾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전 현상의 원인에 대해 더 자세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 박신형

○ 탐방 후 느낀 점: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올바른 정치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민주주의 선진국의 정치 문화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결핍을 느꼈던 부분은 현실 연구의 부족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외국의 정치 제도 및 문화에 대한 저명 있는 학자들의 연구나 의견 등은 정보 통신의 발전으로 한국에서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치 아래 살아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은 방문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번 학술 탐방을 계기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 탐방을 통한 나의 발전계획: 이번에 방문한 세 나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는 모두 대한민국보다 민주주의를 먼저 시작했고 선진적인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많은 제도와 문화를 이 세 나라로부터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요인으로 인해 서유럽 특히 이 세 나라의 정치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파시즘의 재출현이 우려될 듯한 정치 현상이 다시 보여지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도 이탈리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은 두 국가와 반대로 좌파 포퓰리즘의 세력 확장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서유럽 국가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갈라치기나 양극화 현상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다만, 극단주의 세력이 힘을 갖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도 언제 다시 극단주의 세력이 등장해 사회혼란을 가져올 지 모릅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성숙한 민주시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다녀온 유럽 국가와 그 외 국가의 사례를 연구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이란 무엇이며 무엇을 해야 할 지 끊임없이 고민할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